

#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김운삼  
강동대학교 유아교육

## Relationships Affecting Youth Suicide

Un-Sam Kim

Early Childhood Education, Ga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고 가족 내에서 더욱 화합하기 위한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 자녀 간에 때때로 무심코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한다. 둘째,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이 발생할 때, 학교나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상담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태도 교육 등 그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이나 충동적인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살예방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자살예방 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울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 청소년, 자살생각, 유아교육, 위험요인, 가정폭력

**Abstract** This study used survey research metho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narrow th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parents and the adolescents, to make efforts in each family to be more harmonious within the family, and to reduce consciously the physical and verbal violence which is sometimes unintentionally applied between the parents. Second, when adolescents attempt suicide, counseling agencies in school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ocal communities should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adolescent crisis situations, and follow-up measures such as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and suicide attitude education must be conducte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juvenile delinquent suicide and impulsive suicidal thoughts. Third, when developing adolescent suicide prevention and related programs, differentiated programs and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tried. Fourth,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suicidal thoughts of adolescents by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of high - depression adolescents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adolescents out of school.

**Key Words** : Youth, Suicidal Thought, Early Childhood Education, Risk Factors, family[domestic] violence

---

Received 6 July 2018, Revised 16 July 2018  
Accepted 23 July 2018  
Corresponding Author: Un-Sam Kim(Gangdong University)  
Email: edupsy9@hanmail.net

ISSN: 2466-1139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자살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방송되어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발생비율 역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 OECD 평균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 당)이 11.2명인데 반해 한국은 2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9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5,413명으로 2008년에 비해 2,555명(19.3%)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한 가운데 청소년의 자살률 증가가 매우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05년 279명이던 전국의 10대 자살자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에는 446명까지 늘어났고, 자살이 10대의 사망원인 중 1위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자살생각은 엄격한 의미에서 자살과 다른 속성을 지니지만 논리적으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에 앞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과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살행위는 자살시도를 경험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고, 자살시도는 자살생각을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경험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 한다(Cohen, Spirito & Brown, 1996; Lewinsohn, Rohde & Seeley, 1996; 홍나미, 2011 재인용).

이러한 청소년 자살의 사회·환경적 배경에는 이들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정과 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학업 성취문제 (Chun, 2001; Sohn, 2005; Moon, 2006), 가정의 경제적 상황 (Nam, Choi, & Min, 2011),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 (Kim, Chung, & Lee, 2009; Park, 2010), 학교폭력 피해 (Kim & Lee, 2009; Kim & Lee, 2010; Lubell & Vetter, 2006) 등이 청소년 자살의 사회적 배경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학대나 폭력 피해는 청소년 자살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ark, 2010; Nam, Choi, & Min, 2011; Kim & Nam, 2013),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 중 신체적 학대는 자살생각과 관련이 높고(Nilsen & Conner, 2002), 중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 고등학생에 비해 사회적지지 등의 영향이 무의미해서 자살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어느 연령층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ark,

2010). 뿐만 아니라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약 1년간 12.0%의 청소년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며, 이중 44.7%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3). 또한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고등학생의 경우 5.7%인데 비해 중학생의 경우 13.4%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Ministry of education, 2012)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생각도 중학생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이나 특정 사회구조 등의 단일요인에 의해 일어나기 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가족, 학교 및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김운삼, 1997; 김기환·전명희, 2000; 최원기, 2004; 조윤숙, 2008). 자살은 일단 일어나고 나면 이에 대한 어떠한 개입이나 조치도 소용이 없기에, 예방만이 자살에 대한 유일한 대처이므로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자살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정수·노성덕, 2003).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일반화되어가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검토하고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청소년을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부모·또래·친척·교사와의 인간관계와 가족·학교·사회요인 이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포괄 할 수 있으면서도 일괄되게 연구되고, 청소년들이 가장 크게 경험하는 가족 요인 중 부모학대 및 폭력과 친인척자살경험이 강력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 (보건복지부, 2011;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11)의 보고에 의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형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학대와 폭력, 친인척자살경험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에까지 이르러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김진주, 2011).

학교요인으로는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보영, 2008; 고선, 2009; 박재연, 2010)을 보면, 여러 학교요인들 중 청

소년들의 학교폭력과 학교부적응 요인들은 더 증가되어 가고 있고, 연령대가 고등학생들보다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들이 훨씬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요인으로는 자살사이트 및 연예인 자살보도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강력 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박병규, 2006; 김동숙, 2010; 신선철, 2012; 임채 곤, 2013)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사이트방문경험과 연예인 자살보도 경험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남영옥·이상준, 2005; 이주연, 2012), 소년들 중 일부는 심각한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진주, 2011).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김미애, 2006; 서혜석, 2006; 엄태완 외, 2008; 차미영, 2010; 서상범, 2011)에서는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보고가 있지만 모든 청소년이 우울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우울청소년이 자살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은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울이 가장 직접적이고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전조증상이기에 우울을 매개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적응 및 정신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청소년의 부정정서의 완충자 역할을 하며,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우울을 완화시키며,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정영주·정영숙, 2007; 강성욱, 2010; 송인한 외, 2011)를 조절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은 청소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자살성향을 예측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절 요인을 규명하는 등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자살을 방지하거나 청소년자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청소년자살을 예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개인특성, 가정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에서 야기 된다고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자살의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과 이들 간에 취약요인이 자살생각을 부추기는 촉매역할 을 하는지와 보호요인은 자살생각을 약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지 경로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자살생각의 완화적 요인을 탐

구하여 청소년 보호요인이 많을수록 청소년자살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음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둔다.

## 1.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배경요인(성별, 학교계열, 거주지, 부모의 학력,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위험요인(독립변인)과 자살생각(종속변인)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인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넷째, 선정된 배경변인, 위험요인, 중재변인(보호요인, 취약요인)은 자살생각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가? 그리고 선정된 변인의 중요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2. 이론적 배경

### 2.1 자살의 개념

자살이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였고, 뒤르켐 자신이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고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동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죽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안락사의 경우도 자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더 살수도 있을 텐데 좀 편히 죽기 위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 이것도 자살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현명호 교수(전주우석대 심리학과)에 의하면, 안락사는 자살로 보기엔 미흡하다고 한다. 프로이트로 시작되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은 자살을 자기에 게로 돌려진 공격성, 또는 자기에게로 향해져 있는 죽음의 본능(타나토스)의 활동적 요소의 극적인 표현이라 정의하지만, 이런 주장은 검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간접적인 증명에도 실패를 했다. 그리고 미국의 칼 메닝거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자살은 자신을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죽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일가족 동반자살이나

정사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자살과 타살이 미묘하게 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Baumeister(1990)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 즉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념화했다.

자살은 인간에게서만 나타난다.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물도 스스로를 파괴하려 하지 않는다. 세포의 재생이 저절로 중단되거나, 어떤 종류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나, 혹은 극단적인 형태의 자기보호 수단으로 자해가 행해지는 경우, 또 개체보존의 본능에는 명백히 위배되는 자기파괴 행위가 관찰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종 특유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살(suicide)이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sui(자기 자신)와 caedo(죽인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자살은 자유의지에 의해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발적 행위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TO, 1968)에서는 자살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자해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자살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의도를 가지고 그 동기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한 상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 변화가 급격한 시기로 스트레스가 많고 따라서 문제도 많은 시기이다. 사회가 더욱 유흥적 해지면서 전통적지지가 줄어들고 어른들의 직장이 바뀌어 이직이 잦아지며 가족 이외의 의미 있는 관계를 발달 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스트레스가 된다.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부분적으로 결여되어 있기에 젊은이에게서 우울증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빠른 호르몬의 변화와 이차 성징으로 신체적인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이로 인한 취약점 정신질환에 대한 유전적인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 학교 생활의 변화도 최근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자살 이유이다. 청소년의 자살은 또한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 사전 계획이 없이 충동적이고 자살은 미화하는 경향이 있고 친구와 함께 하는 동반자살 모방자살 등이 흔하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거나 자살을 성공한 청소년은 1/3에서 이전에 자살을 시도했다. 주요 우울장애, 정신병적 증상을 가졌다. 특별하게 높은 위험율을 갖는 청소년은 기분장애와 물질 남용, 공격적인 행동을 했던 청소년이었다. 기분장애가 없이 공격성, 폭력적, 충동적인 청소년은 가족의 갈등 중에 자살하기 쉽다. 남자보

다 여자에서 우울증이 있는 경우 더욱 심각한 자살의 위험요소이다.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더욱 심한 정신병리를 가지고 있다.

자살행위이란 자살생각부터 자살계획, 자살시도, 완성에 이르는 연속적인 범위로써 개념화될 수 있으며(Lewinsohn et al., 1996; Pfeffer, 1986), 자살생각이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등 사고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자살시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경우이다(임영식, 오세진, 1999).

자살의 동기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이 부모, 이성, 교사와의 갈등, 학업문제와 외모에 대한 고민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박광배·신민섭, 1991). 교사와 또래와의 갈등관계는 대인관계의 지속적인 소외감을 일으키며, 학업문제는 부모님의 기대와 맞물려 청소년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

## 2.2 자살생각의 개념

자살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알아낼 수만 있다면 자살현상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의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자살 위험 요인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청소년 자살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살 사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선행연구를 볼 때, 청소년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성적 부진, 진학 실패, 가정불화, 친구와의 관계 악화, 부모 상실,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거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 등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살생각은 우연히 또는 일시적, 수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 지속적인 특징을 지닌 다양한 수준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살생각이 자살의도의 어느 수준에서 소멸되거나 분명해 지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일시적’인 자살생각일지라도 좀 더 지속적이며 심각해질 수 있는 위험행동의 연속선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살생각이 일부에게는 발달과정에서 일시적인 경험일지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만성적이며, 손상을 입히고, 잠재적으로는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생각의 심각성보다 자살생각 그 자체의 여부가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Reinherz et al., 2006; 홍나미, 2011재인용).

자살생각에 대한 원인 연구 중 대표적으로 다루어진 요인은 우울로, 우울은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심리적 변인이기도 하다(서한나, 2011; 진혜민, 2012 재인용). Metha 외(1998)는 청소년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연구에서 우울증, 절망감, 자존감 등을 예측변수로 보고 모든 변수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울증에서 남학생은 약물 다음으로 자살위험으로 가는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우울증에서 바로 자살위험으로 넘어갔다. 절망감에서는 남·여학생 모두에 게 약물남용으로 갈 가능성을 보였으며, 우울증은 여학생들에 게 있어서만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반응을 나타냈다. 홍나미와 정영순(1999)은 청소년 우울과 관련한 자살생각 영향 요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여러 요인들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감소를 위한 개입방법을 제시하였다. 유재순 외(2008)는 청소년의 우울, 절망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등의 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여러 요인 중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박경(2004)은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자살 과거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유무나 무망감 유무에 따라 자살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임성택(2007)은 가정 스트레스, 또래관계 스트레스,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고재홍과 윤경란(2007)은 청소년들의 생활 스트레스 중 자기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 스트레스, 학교생활 스트레스, 환경문제 스트레스, 교우관계 스트레스 순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중개인 생활 스트레스인 학교생활, 자기문제, 환경문제에는 자아탄력성이 자살생각을 조절해 주는 완충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청소년기에서의 자살생각은 다른 연령층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며 자살생각에서 머무르기 보다는 제어장치 없이 충동적, 감정적 대응으로 곧바로 자살생각에서 자살행동으로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고 청소년기 자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개입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3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특성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들 한다.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상처받기 쉬운 불안한 위기의 시기로서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발달하는 과정의 긴 세대로 급격한 생물학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을 하고자 하는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성호르몬의 분비증가와 더불어 이차성장이 나타나 신체적·성적발달이 촉진되고, 심리적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다양한 인재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반면 대중매체나 유해환경에 매우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기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경우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자살생각과 문제행동을 보이며 심리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 자살은 개인 심리적 요인에 의하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정적인 요인이 크다. (장은선 외, 2007; 박재산 외, 2010; 우채영 외, 2011; 장은진, 2011).

주변 환경의 강력한 요인 중 가족요인(최인재, 2010; 이근영 외, 2011), 학교요인(김정수·노성덕, 2003; 우채영·김판희, 2011), 사회요인(고성은·홍혜영, 2009; 장선희·이미애, 2010) 등 대인관계로 인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주요한 자살생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대인관계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을 하거나 자살시도를 하게 된다(이창식 외, 2012).

가족요인 중 부모의 자녀학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보건복지부, 2011;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11).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학대 받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위험이 3배로 높았으며 (이정숙 외, 2007; 이근영 외, 2011), 자살생각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박병금, 2006; 김재

업, 2009). 자살시도의 경로를 연구한 Wan & Leng(2010)은 신체적학 대로부터 자살이 출발한다고 강조하였다. 청소년들의 학대피해가 지속적으로 겪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과 불안, 신체적 공격성,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순, 2008 재인용).

또한 사회적으로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가정의 해체나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 교우문제 등과 함께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대중매체의 개방화와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혼란을 줄뿐 아니라, 결국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은 우울, 물질남용 및 비행행동 등의 문제와 함께 자살의 위험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소라, 2010).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자살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많은 연구(Bridge et al., 1997), Gould 외(1996)들을 보면,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친인척자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친인척자살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높은 자살시도 또는 자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지승희 외, 2007). 김현실(2005)은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 친인척자살경험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친인척 자살경험은 청소년의 우울이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친인척 중 자살경력이 있는 청소년일 경우 자살위험 요인이 친인척 자살경험이 없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연구가 있다(하현희, 2001).

학교요인 중 학교폭력 역시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위험 요인이며(김보영, 2008; 고선, 2009; 박재연, 2010), 국외의 선행연구(Rigby와 Slee, 1999; Brunstein et al., 2007)에서도 학교폭력의 피해청소년이 자살가능성이 높음을 제 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연관성이 있었다(박재연, 2010). 하현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때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라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김정수와 노성덕(2003)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어느 때에 자살을 생각하는지에 설문에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학교생활은 하루 중 청소년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불안과 절망, 그리고 소외감 등을 느끼며 소극적 인

자세로 자신감이 없어지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이미라, 2001). 김성춘(2002)은 학교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이 자살생각이 더 많이 하였고, 박영숙(2009)의 연구보고에서도 학교생활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의 위험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요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의 영향과 대중 매체의 연예인 자살보도의 영향을 들 수 있다(박병근, 2006; 김동숙, 2010; 경향 일보, 2013; 박종익, 2012; 신선철, 2012; 임채근, 2013).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 본 연구와 다양한 독립요인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다변인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단편적으로 몇 가지 변인만 살펴 본 연구들 중 박재연(2010)은 자살생각 유발변인으로 아동학대를, 억제변인으로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를 선택하여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우체영 등(2010)은 억제변인을 제외하고 자살생각의 유발변인인 부모-자녀, 교사-학생, 또래의 부정적인 관계와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만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김현주(2008)의 연구와,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우울을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살펴 본 임태완 외(2008)의 연구 등 대다수의 연구들이 매우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단편적인 몇 개의 변인으로만 관련지어 살펴보았고, 변인들 간의 상호복합적인 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임소선, 2006). 반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양한 요인들로 묶어 다변인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박병근·노필순(2007)은 청소년의 자살생각 원인을 개인체계, 가족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친구환경체계, 대중매체환경체계로 나누고, 어떤 변인이 자살생각을 유발하고 억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개인체계 변인인 우울이 자살생각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가족환경체계 변인인 학대 경험과 부모폭력이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것으로, 개인체계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자살생각을 억제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Wyndham(1998)의 연구에서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와 자녀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학

대경험'의 요인으로, Baldry & Winkel(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험'의 요인으로, Bridge 외(1997)의 연구에서는 '친인척자살경험'의 요인으로, Gould 외(2003)의 연구에서도 '자살의 가족력'의 요인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용미주, 201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이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으면서도 일괄되게 보고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인으로 "부모 학대 및 폭력과 친인척자살경험을 가족요인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요인으로 Rigby와 Slee(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구성하였으며, Reinherz 등(2006)의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의 요인으로, Rueter 등(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애착'을 요인으로, Langhinrichsen(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을 요인으로, Rohde와 Rohling(2003)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가장 높은 요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의미로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박재연, 2010).

### 3. 연구의 방법

#### 3.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서베이 연구 설계를 사용한 것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요인들의 관계를 대표 할 수 있는 다수의 표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표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경기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추출은 학생이 아닌 학교를 기본 단위로 하며, 전체 1,000명의 학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들 중 자살생각 청소년들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정확도를 위한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조사대상 청소년들중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들 중에서도 자살생

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표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의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소재 중·고등학교 총 8개교(중학교 4개교 중 : 남·여 각각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중: 남·여 각각2개교, 인문계 2개교) 중·고등학교 2, 3학년제 재학중인 청소년이다. 조사대상 학교는 성별, 중학교 및 고등학교(인문계)의 비율에 따라 비례층화표집하였으며, 학급의 선정은 학교의 내부사정에 따라 학교장이나 의뢰받은 담당교사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 3.2 측정도구

#### 3.2.1 자살생각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98)의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고 요인분석에 맞도록 재구성한 박병금(200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난 1년간의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의 빈도를 측정하여 '전혀 없다' 1점에서 '거의 매일' 5점인 5점 리커트 척도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 생각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자살생각의 신뢰도 계수는 .96이다.

〈표 3-1〉 자살생각 척도

자살생각	자살계획	1, 2, 5, 6, 10, 11, 12, 13
	자살지도	3, 4, 7, 8
	자살실행	9, 14
	계	14문항

#### 3.2.2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서 근심, 침울, 실패감, 상실감, 무기력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Beck, 1974; 김교현·전경구, 1997)로 정의된다. 우울 변수의 측정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와 김오남(1988)의 척도를 사용한 박주연(2010)의 13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도록 측정하였다.

### 3.2.3 가정폭력 경험

Straus(1979)가 제작한 CTS(The Conflict Tactics Scale)와 박병금(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참고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폭력 경험은 부모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한 적이 있는지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 흉기로 폭력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언어적으로 욕이나 비난한 적이 있다',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의 문항을 부모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의 3영역으로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의 범주는 전혀 없다, 1년에 1-2회, 1년에 3-4회, 한 달에 1-3회, 주 1회 이상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하위 신뢰도 계수는 각 부모간 .78, 부모가 자녀에게 .80, 자녀가 부모에게 .74이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표 3-2〉 가정폭력 경험 척도

가정폭력 경험	부모간	1, 2, 3
	부모가 자녀에게	4, 5, 6
	자녀가 부모에게	7, 8, 9
	계	9

### 3.2.4 학교부적응 척도

학교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박근수(2003)가 제작한 학교부적응 행동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학교부적응 요인을 4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교사관계(8문항), 교우관계(9문항), 학습활동관계(9문항), 학교규칙 준수관계(7문항) 모두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부적응 수준에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교부적응 하위요인은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부적응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744$ 로 나타났다.

〈표 3-3〉 학교부적응 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교사관계	4, 8, 11, 15, 22, 24, 27, 31	8
교우관계	1, 5, 9, 12, 16, 19, 25, 28, 32	9
학습활동관계	2, 6, 10, 13, 17, 20, 23, 29, 33	9
학교규칙준수관계	3, 7, 14, 18, 21, 26, 30	7
합계		33

### 3.2.5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Dubow & Ulman의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SSAS)를 기초로 한미현(1995)이 변한 제작한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지각의 요인은 친구지지 8문항, 가족지지 8문항, 교사지지 8문항으로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대한 문항의 합한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요인을 많이 지지받는 것임을 의미한다. 보고된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0.947로 나타났다.

〈표 3-4〉 사회적지지 척도

항목	하위요인	문항번호
사회적지지	가족지지	1,2,3,4,5,6,7,8
	또래지지	9,10,11,12,13,14,15,16
	교사지지	17,18,19,20,21,22,23,24

## 3.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Quantitative research method)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을 밝혀내고자 자료 분석은 SPSS 18.0/PC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통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기술적 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변인들을 측정된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 보았다.

셋째,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통해 하위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넷째, 연구문제 2, 3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선행으로 pearson 적률상관계 계수를 파악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중다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8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존재를 의심해볼 수 있다(김두섭·강남준, 200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8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으므로 각 변인들을 회귀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울증, 가정폭력경험, 학교부적응,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살생각 하



위변인들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하고 우울증, 가정폭력 경험, 학교부적응,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단계적(Stepwise)방식의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와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조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중·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392	50.9
	여자	378	49.1
학교	중학교	397	51.6
	인문계고등학교	373	48.4
아버지 연령	30대	192	24.9
	40대	258	33.5
	50대	234	30.4
	60대	86	11.2
어머니 연령	30대	368	47.8
	40대	254	33.0
	50대	108	14.0
	60대	40	5.2
아버지 학력	고졸	58	7.5
	전문대졸	452	58.7
	대졸이상	260	33.8
어머니 학력	고졸	88	11.4
	전문대졸	532	69.1
	대졸이상	150	19.5
월평균 수입	300만원미만	134	17.4
	300~500만원	271	35.2
	500~700만원	227	29.5
	700만원이상	138	17.9
부직업	전문/기술직	228	29.6
	사무직	345	33.8
	생산직	128	16.6
	노무직	69	9.0

변 수		사례수(명)	백분율(%)
모직업	전문/기술직	48	6.2
	사무직	242	31.4
	생산직	48	6.2
	노무직	73	9.5
	무직	359	46.6
학업성적	상위권	284	36.9
	중위권	287	37.3
	하위권	199	25.8

<표 IV- 1>은 본 조사에 참여한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성별은 전체 770명 중 남자가 50.9%(392명)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49.1%(378명)로 나타났다.

학교는 중학교 51.6%(397명), 고등학교 48.4%(373명)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연령은 40대가 33.5%(358명)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연령은 30대가 47.8%(368명), 40대 33.0%(254명)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전문대졸이 58.7%(452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상 33.8%(260명)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전문대졸이 69.1%(532명), 대졸이상 19.5%(150명)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 300~500만원이 3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0~700만원 29.5%, 700만원이상 17.9%, 300만원미만 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3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직이 29.6%, 생산직이 16.6%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 직업은 무직(가정주부) 46.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이 31.4%, 노무직 9.5%, 생산직, 전문/기술직 각각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학업성적은 중위권 37.3%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위권이 36.9%, 하위권이 25.8%의 순으로 나타났다.

##### 4.2 관련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비교	자살 계획	자살 시도	자살 생각	자살 우울 증	부모 부부	부모 자녀 관계	학교 성적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학교 규칙 위반	학교 지지	학교 지지	학교 지지	학교 지지
자살 계획	1													
자살 시도	0.749 (*)	1												
자살 생각	0.688 (*)	0.580 (*)	1											
자살 생각	0.960 (*)	0.881 (*)	0.983 (*)	1										
우울 증	0.587 (*)	0.488 (*)	0.665 (*)	0.630 (*)	1									
부모 부부	0.482 (*)	0.373 (*)	0.455 (*)	0.490 (*)	0.684 (*)	1								

부모 자녀	.036	-.002	.021	.078	.401	* 1														
자녀 부모	-.219**	-.209**	-.184**	-.229**	-.142**	-.271**	1													
가정 폭력	.204*	.124*	.497*	.497*	.835*	.540*	.711*	.446*	1											
교사 관계	.196*	.171*	.402*	.490*	.068	.134*	-.000	.407*	1											
교우 관계	.123*	-.068	.083	.408*	.023	.079*	.105*	-.065	.024	.354*	1									
학습 활동	.113*	.103*	.023	.104*	-.015	.028	.025	.122	.099	.882	.636*	1								
학교 규칙	.047	-.014	-.066	.010	-.051	.058	.115	.450	.486	.251	.406	.425*	1							
부적 응	.165*	.132*	.071*	.453*	.019	.082*	.120	.097	.637	.815	.915	.460*	1							
가족 지지	.092	-.082	-.023	-.085	.011	-.025	-.107	-.005	.081	.092	.442	.687	.409	.426*	1					
또래 지지	-.013	.013	-.069	.014	-.069	-.109	.091	-.013	-.063	.135	.088	.403	.416	.484*	1					
교사 지지	.054	.050	.022	.044	.014	.021	.052	-.042	.020	.076	.092	.049	.028	.082	.233	.345*	1			
사회 지지	.060	.065	.025	.052	.018	.049	.065	.025	-.083	.030	.464	.099	.406	.443	.766	.803	.695*	1		

\*\* p<.001, \* p<.01

분석결과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우울증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폭력이 .455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는 모두 .40 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독립변수인 위험요인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정(+),적인 관계를 보여 본 연구문제와 관련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개인 관련 변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다음 <표4-3>과 같다. 청소년의 개인 관련 변인의 하위 변인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자살계획)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독립변인들간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해 본 결과 VIF는 1.00이하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이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각 변인들의 청소년 자살생각(자살계획)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베타	t	R2	F
자살계획	(상수)	.896		3.708***	.419	49.724**
	우울증	.398	.470	13.670***		
	부모	.123	.151	4.171		
	부모자녀	.007	.008	.264		
	자녀부모	-.125	-.133	-4.485**		
	교사관계	.161	.117	3.774***		
	교우관계	.010	.008	.221		
	학습활동	.097	.071	1.876		
	학교규칙	.018	.012	.389		
	또래지지	-.136	-.101	-1.871		
교사지지	-.083	-.063	-1.399			
사회지지	.307	.176	2.497**			

\*\* p<.01,\*\*\* p<.001

청소년의 자살생각(자살계획)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적응(교사관계), 사회적지지 전체에서 41.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49.724, p<.001). 우울증이 높고,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사관계가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자살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각 변인들의 청소년 자살생각(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베타	t	R2	F
자살시도	(상수)	1.058		3.319***	.296	29.026***
	우울증	.418	.412	10.880***		
	부모	.088	.090	2.252		
	부모자녀	-.023	-.021	-.667		
	자녀부모	-.146	-.130	-3.965***		
	교사관계	.196	.119	3.486***		
	교우관계	-.096	-.067	-1.615		
	학습활동	.217	.132	3.171**		
	학교규칙	-.075	-.043	-1.207		
	또래지지	-.082	-.050	-.850		
	교사지지	-.074	-.046	-.941		
	사회지지	.283	.135	1.745		

\*\*\* p<.001

청소년의 자살생각(자살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적응 하위요

인 중 교사관계, 학습활동에서 29.6%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29.026, p<.001).

자살시도의 생각이 높은 학생은 우울증이 높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교사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습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살시도 생각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각 변인들의 청소년 자살생각(자살실행)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베타	t	R2	F
자살실행	(상수)	1.007		3.236***	.467	60.305***
	우울증	.684	.601	18.227***		
	부모	.081	.074	2.127		
	부모자녀	-.001	-.001	-.021		
	자녀부모	-.100	-.080	-2.796**		
	교사관계	.092	.049	1.671		
	교우관계	.132	.082	2.269		
	학습활동	.002	.001	.034		
	학교규칙	-.147	-.074	-2.405		
	또래지지	-.077	-.042	-.823		
	교사지지	-.129	-.073	-1.690		
	사회지지	.145	.062	.913		

\*\* p<.01, \*\*\* p<.001

청소년의 자살생각(자살실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에서 46.7%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60.305, p<.001). 가족요인인 ‘부모학대·폭력 및 친인척자살경험’요인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 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들 (Baldry & Winkel, 2003; Gould M, 2003; Wyndham, 1998; Bridge, 1997)을 지지 하는 것이다.

〈표 4-6〉 각 변인들의 청소년 자살생각(전체)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베타	t	R2	F
자살생각	(상수)	.958		4.121***	.463	59.380***
	우울증	.445	.525	15.867***		
	부모	.107	.131	3.766***		
	부모자녀	-.003	-.003	-.109		
	자녀부모	-.127	-.136	-4.751***		
	교사관계	.161	.117	3.926***		
	교우관계	-.003	-.002	-.067		
	학습활동	.118	.086	2.363		

학교규칙	-.032	-.022	-.702		
또래지지	-.112	-.083	-1.602		
교사지지	-.087	-.066	-1.523		
사회지지	.277	.159	2.341**		

\*\* p<.01, \*\*\* p<.001

청소년의 자살생각(전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부모가 폭력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 부적응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 사회적지지(전체)에서 46.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59.380, p<.001).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살생각과 우울 요인이 유의미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우울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로 가족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중·고등학생은 가족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을 낮추는 변수로 드러났다. 중학생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을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자가 있는 경우 사회적 지지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결론

청소년은 자기 자신과 환경적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 해석결과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적·환경적 맥락의 이해가 중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한다거나 자살행동억제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비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자살행동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현상이므로 먼저 가장 선행단계인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는지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청소년 1000명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그 중 770부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로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자살생각과 우울증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모폭력이 .455로 높게 나타났고, 종속변수인 자살생각과 독립변수인 위험요인 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정(+ )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자살생각(자살계획)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적응(교사관계), 사회적 지지 전체에서 41.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살생각(자살시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적응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 학습활동에서 29.6%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살생각(자살실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에서 46.7%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살생각(전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우울증, 부모가 폭력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할 때, 학교부적응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 사회적지지(전체)에서 46.3%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청소년의 성별과 학교 및 소속기관, 학업 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바, 청소년의 자살예방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자살예방 교육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여자 청소년 집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아울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환경 변인에서 가족지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정폭력 경험, 가족·친척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 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태도를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기의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가족임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지지와 화목이 그 어떤 사회

적 지지보다도 든든한 심리적 지원체계의 기초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고 가족 내에서 더욱 화합하기 위한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며, 부모 자녀 간에 때때로 무심코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을 의식적으로 줄여야 한다.

셋째, 또래 변인으로 친구의 지지와 친구의 자살 또는 자살시도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이들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친구의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많은 결과를 볼 때, 청소년 시기에는 사회적 지지나 다름없는 또래 친구의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나 교육 장면에서는 또래 간의 지나친 경쟁 구도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주변 친구의 자살시도나 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심리적 피해 또한 크다고 생각된다. 자살 또는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이 발생할 때, 학교나 교육기관, 지역사회의 상당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살 예방교육 및 자살태도 교육 등 그 후속조치를 반드시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모방 자살이나 충동적인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개인 변인은 자아 존중감, 우울, 공격성, 충동성, 스트레스의 요인들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하나의 예로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 중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전국학교와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울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방하는 데에 필요하리라 본다.

아울러 과거의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개인 상담이나, 자살예방 교육 또는 자살태도 관련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자살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검색하는 것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반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살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와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율적 규제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더불어 보다 나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표본추출의 제한성이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전수조사가 아닌 연구자에 의한 임의적 표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확률표집으로 표본이 선정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으므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조사자의 대부분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서 설문지 작성에 있어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고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항목에 답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학교를 통한 자료수집이 아닌 개별적 접근에 의한 수집도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자살생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심층면접을 통한 질 적조사가 후속 연구에서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을 규명했는데, 자살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은 실제로 자살위기에 처해 있거나 자살 시도를 해 본 청소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청소년들의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는 때로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기도 하므로, 이들의 호소하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들어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청소년의 자살 위기를 예방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References

- 강석화(2012).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와 우울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성욱(2010). 청소년의 우울, 사회적지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실·송양숙·조향숙·강성년(2004).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 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2), 190-199.
- 강혜승(2006. 2. 19.). 수원 청소년 자살예방센터를 찾아서. 서울신문.
- 고재홍·윤경란(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Vol.18 No.1.
- 김교현(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5-68.
- 김기환·전명희(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학, 9 : 127-130.
- 김동숙(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의 연구 : 공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식(2000).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비행성향 및 자살충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희(2003). 청소년 신체적 폭력의 예측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애(2006).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철(2010).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예측 변인 연구: 자살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제54권 제2호, 346-362.
- 김보영(2008).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영·홍세희(2012).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 분류와 예측.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 251-275.
- 김순규(2008).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66-93.
- 김은정(2002). 청소년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엽·이근영(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5호.

- 121-149.
- 김계엽·정윤경·이진석(2009). 가정내 자녀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관계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19-144.
- 김정수·노성덕(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학생생활상담연구소, 『대학생활연구』*, 제21호, 153-172.
- 김정은(2009). 청소년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8). 청소년 자살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27, 69-93.
- 난주(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영옥(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 요인의 중재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3호, 199-218.
- 노충래·김설희(2012).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에 대한 개인요인 및 사회적지지요인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9권, 39-68.
- 류은정·최귀순·서정석·남범우(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우울, 자살사고와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4(1), 102-110.
- 문동규(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성원(2002).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자살: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61-485.
- 박경원(2013).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스트레스와 집단따돌림 및 사회적지지. *승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금(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병금(2007). 청소년의 가족환경요인과 자살생각. 『*생활과학연구논총*』, 제11권 제1호, 1-17.
- 박병금(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보건사회사업*』, 제31집, 207-235.
- 박병금·노필순(2007). 우울에 따른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변인, 우울청소년과 비우울청소년의 집단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6호, 168-193.
- 박선희(2008). 청소년기 인터넷 사용 수준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 『*한국학교 보건학회지*』, 제21권 제2호, 23-33.
- 박에스터(2012). 중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한 성경적 상담.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숙(2011). 학교위험요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Baumeister의 도피이론 모형의 검증을 통해.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익(20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연구. *강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주연(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병렬(2005). 『LISREL 구조방정식모델』-이해와 활용-. 도서출판 정담.
- 서혜석(2006).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승근(2006). 청소년의 자살태도, 자살위험성 및 생명존중교육 참여 요구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용미주(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채영(2009). 청소년의 부정적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우혜선(200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종희(2012).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가족탄력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육성필(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란(200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진(2003). 청소년 자살의 고위험집단과 저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구·이윤정·정혜선(2011). 남녀 중·고등학생의 자살시도 예측요인. 『*대한 간호 학회지*』, 제41권 제5호, 652-662.
- 이혜경·신현숙·이경성(2005). 비행청소년의 자살사고 예

- 측변인. 『청소년상담연구』, 제14권제1호. 49-62.
- 장선희·이미애(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8호. 27-55.
- 정계숙(2005). 청소년 자살생각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보행(2013). 청소년자살의 위험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분석.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윤숙(2008).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환경 및 학교 생활 부적응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미영(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우울의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진(2011). 고등학생의 자살위험 모형.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연희(2001). 중학생의 자살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정미(2011). 상담가의 자살예방 사이버상담 경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나미(2011). 부모학대와 또래괴롭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인 관계내재화와 절망감의 매개 경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수(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정미(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요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yyash-Abdo, H.(2002). Adolescent suicide :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s* , 39(4), 459-475.
- Beautrais, A. L.(2006). Suicide prevention: What we know & do not know.
- Beautrais, A. L., Joyce, P. R., & Mulder, R. T.(1999). Personality traits and cognitive styles as risk factors for serious suicide attempts among young people. *Suicide Life Threatening Behavior*, 29(1) , 37-47.
- Beca-Garcia, E., Diaz-Sastre, C., Garcia Resa, E., Blasco, H., Braquehais Conesa, D., & Oquendo, M. A.,(2005). Suicide attempts and impulsivity. *Eur Arch Psychiatry Clin Neurosci* , 255, 152-156.
- Berzo, J., Paris, J., Tremblay, R., Vitaro, F., Zoccolill, M., Hebert, M., & Turecki, G. (2006). Personality traits as correlates of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in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36(2) , 191-202.
- Buddeberg, C., Buddeberg, F. B., Gnamm, G., Schmid, J., and Christen, S.(1996) Suicidal in Swiss student: An 18-month follow-up survey. *Crisis* 17: 78-86.
- Burns, J. m., & Patton, G.C. (2000). Preventative interentions for youth suicide: A risk factor-based approach.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 , 388-407.
- Bushman, B. J., Huesmann, L. R.(2006). Short-term and Long-term Effect of Violent Media on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ult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0(4). 348-353.
- Flannery, D. J., K. L. Wester, & M. I. Singer(2004), "Impact of Exposure to Violence in School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Behavior", *Journal of Community Psychiatry*, 139: 1257-1261.
-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Shaffer D.(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2(4): 386-405.
- Kelly, T, M, Cornelius, J, R., & Lynch, K. G.(2002). Psychiatric and substance use disorder as risk factors for attempted suicide among adolescents: a case-control stud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2 , 301-312.
- Kerr, D. C. R, Preuss, L. J., & King, C. A.(2006). Suicidal adolescents' social support from family and peers: Gender-specific associations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 34(1):103-114.
- Kim, B. Y., & Lee, C. S. (2009), A meta-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5), 651-661.

- Kim, D. S. (2010). An Eco-Systemic Study of the Suicide idea of High School Students-Centered on Gong-ju C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 Ju National University, Gong Ju.
- Kim, H. S. (2002).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mily dynamic environment and suicidal attempt among korean adolescents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es*, 32(2), 231-242.
- Langhinrichsen-Rohling, J., Friend, J., & Powell, A. (2009). Adolescent suicide, gender, and culture: A rate and risk factor 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4 (5), 402-414.
- Liu, X. & Tein, J.(2005),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suicidal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6(2/3): 195-203.
- Marisa Nicole Spam(2005). External Locus of Control as a predictor for suicide Risk in African American teenagers, Doctoral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42(4), 386-405.
- Masako Mori, (2002), "The Role of Perceived Family Dysfunction in The Occurrence and Severity of Adolescent Suicidality among Urban Ethnic Minority Psychiatric Outpatients", Doctoral Dissertation, Colombia University.
- Meehan, D., Lamb, J. A., Saltzman, L. E., & O'Carroll, P. W. (1992). Attempted suicide among young adults Progress toward a meaningful estimate of preval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 149 , 41-44.
- Michael, K, Richard, H, &Elizabeth, D. (1995). Brief home-based intervention with young attempter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Adolescence*, 18 , 557-568.
- Moon, S. W. (2002). Suicides mediated by internet sites about suicides: the explorative study on the suicidal cases related with suicide sit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2), 461-485.
- Part I: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Suicide Life Threatening Behavior*, 30(2) , 145-162.
- Stack, S. (2000). Suicide: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 Straus, M. A., Hamby, S.L., Boney-McCoy, S., Sugarman, D.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Wan, G. W. Y., & Leng, P. W. L. (2010), Factors accounting for youth suicide attempt in Hong Kong: A model building. *Journal of Adolescence*, 33, 575-582.
- Watt, T. T., & Sharp, S. F.(2001), Gender differences in strain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333-348.
- Yoder, K A., & Hoyt, D. R.(2005). Family economic pressure and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pplicat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Suicide Life Threat Behavior*, 35(3), 251-264.

김 윤 삼(Kim, Un-Sam)



- 홍익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 관동대학교, 숭실대학교, 청주대학교, 충청대학 강사역임
- 2002년 ~ 현재 : 강동대학교 유아교육학 교수
- 관심분야 : 교육, 정신건강, 심리, 유아
- E-Mail : edupsy9@hanmail.net